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의지 담은 소설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새 학년이 됐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민지를 보고 엄마는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야 했지요. "너 요즘 보아 처럼 되겠다고 날마다 춤 노래 연습만 할래? 괜히 헛물켜지 말고 틈틈이 공부하자. 네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네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될 거야." 잔소리라고 흘려들으려다 민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민지는 "엄마, 헛물켜다 라는 말이 무슨 뜻 인데요?" 이런 잔소리라면 그래도 괜찮았나요?

헛물켜다: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두고 꼭 되려니 하고 헛되이 애를 쓰다.

갈무리: 1. 돌건 따위를 잘 정리하거나 간수함. 메밀 네댓 되와 겨울 동안 갈무리를 했던 토란 잎. 아주까리 잎을 내다 팔기 위해 잘 절음을 하기로 작정하고 있기도 했다. <김원일, 불의 제전>
2. 일을 처리하여 마무리함.
옆 사람에게 일의 갈무리를 부탁했다.

가탈: 이리저리 트집을 잡아 까다롭게 구는 일. 어릴 적부터 음식에 가탈이 심하던 환도 후싹박이 만든 음식에는 불만이 없었다. <박경리, 토지>

개수물: 음식 그릇을 씻을 때 쓰는 물. 비릿한 시궁 냄새를 풍기는 도랑창이 바로 눈 아래 있고 급방 내버린 개수물에서 김이 뽀얗게 올라왔다. <윤홍길, 묵시의 바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김시습 '금오신화'

김시습(1435~1493)은 조선초기의 문인. 호는 매월당이지요.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세조의 왕위 찬탈에 비탄간개한 나머지, 세상을 등지고 전국을 방랑하며 시문 창작으로 일생을 보냈어요. 경주 금오산에 은거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를 지었는데 금오신화는 평양, 개성, 경주, 남원 같은 과거 왕조의 수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창작성이 돋보이는 작품이지요.

금오신화는 한문 소설이며 단편 소설로 재미와 깊이를 지닌 책이지요. 언제 창작했는지 정확하게 고증하기는 어렵지만 경주 금오산에 위치한 용장사에서 금오신화를 썼다고 해요. 작품속의 주인공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운명에 맞서는 인간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먼저 각각의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면면을 볼까요? 양생(만복사저포기)은 일찍 부모를 여리고 시 읊기를 좋아함. 이생(이생규장전)은 어린 나이에 재주가 뛰어나며 자유연애를 갈구함. 홍생(취유부벽정기)은 도가적 경향이며 시문에 능하고 친구와 친분이 두터움. 박생(남연부주지)은 과거에 합격 못한 불만 많은 유학자로 뜻과 기상이 고상하여 세력에 굴복하지 않음. 한생(옹공부벽정기)은 선비

로서 글을 잘해 조정에서 이름이 올랐고 평판이 좋음.

만복사저포기(萬福寺襍記): 만복사저포기(萬福寺襍記): 만복사의 저포(백제 때부터 유래한 옷)가 종류가 많아, 남원의 홍각 양생(梁生)이 만복사의 부처와 저포 놀이를 하여 이겨서, 그 절에 숨어 살던 처녀의 죽은 영혼과 결혼하는 이야기로 소설적 상상력이 풍부하다. 불교의 발원(發源) 사상으로서 시작해서 윤회(輪廻) 사상으로서 끝을 맺는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인물 묘사 등 창작성 뛰어난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평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홍생이 평양으로 가서 친구들과 같이 대동강에서 놀다가 술이 취한 후 부벽정(浮碧亭)에 올랐다가 기자(箕子)의 딸을 만나 밤이 새도록 시를 주고받으며 즐거움을 나누었다. 그런데 날이 새자 그 딸은 시를 남겨두고 홀연히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시(詩)마저 회오리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그 이후 홍생은 상사병을 얻어 죽게 된다. 기자의 딸을 사모한 것은 단종에 대한 연모의 정을 표현한 것.

옹공부벽정기(翁宮浮碧亭記): 주인공 한생은 용왕의 초대를 받아 용궁으로 들어가 상량문을 지어 주고 용왕은 뛰어난 시(詩)를 감탄하여 감탄을 하여 잔치를 후하게 여는데 미인을 총각들이 나와 노래하고 춤

춘다. 잔치가 끝난 후 용왕의 허가를 얻어 누각이며, 번개를 치는 전모(電母)의 거울이며, 뇌공(雷公)의 북, 비를 오도록 만드는 기구 등을 구경한다.

이생규장전(李生龜嶺傳): '이생이 답장인을 엿보는 이야기'란 뜻. 사랑이 테마로 고려의 수도인 개성이 배경이다. 남녀 간의 만남과 헤어짐을 소재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초월한 남녀 간의 간절한 사랑과 사랑이 압권이다. 등장인물은 이생은 다소 소극적이어서 부인을 지극히 사랑하는 인물이며 최랑은 적극적이어서 정조를 중시하는 인물로 역시 남편을 지극히 사랑한다. 이생과 최랑의 사랑은 현실에서 이루어졌던 사랑이 죽음을 세계를 넘어서까지 이어진다. 사건의 전개를 보면 처음에 이생과 최랑이 자유로이 만나 사랑하지만 이생 부모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는 단락, 다시 최랑의 아버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결혼하게 되어 행복을 누리지만 흥건적의 난으로 사별하게 되는 단락, 죽은 부인인물 앞에서 다시 사랑하다가 정해진 '명수'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마지막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작품의 배경은 경주다. 유학자인 박생이 하루는 글을 읽다가 깜박 또는 사이에 꿈속에서 열라국에 들어간다. 박생은 염왕과 많은 질문(問答, 귀신의 도, 군자 소인의 구별, 고금의 처법(治亂), 속세 종교의 흑세무민(惑世誑民)적 죄악에 대하여)을 주고받는데, 여기에 그의 종교관 인생관을 박생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계사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육 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paran.com)

지방대 가도 성공할 수 있나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 지방대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지방대 나와도 정말 성공할 수 있나요? (ID:우울한고3)

최선을 다하는 삶은 아름다워요

수능 날짜는 다가오고, 원하는 만큼의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결정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나 봐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칭찬해주고 싶어요. 고3 시기에 공부를 잘하던 잘하던 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많은 텐데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으면 마음이 조금 해질 것 같아요. 구체적인 상황까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학업이나 입시에 신경을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지방대에 가게 될 경우 어떤 점이 걱정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지방대에 경쟁력 있는 학과도 많고, 요즘 지방대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늘어나는 추세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무엇보다 아직 수능을 보지 않았으니, 벌써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흔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죠. 상담자 생각에는 학생이 지금부터 할 일은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라고 봐요. 고3이다보니 공부하는 시간 10분이 아깝겠지만, 더 큰 미래를 위해 이 과정은 꼭 필요하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학생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상담으로 현재의 어려움이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학생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인지 그 길을 위해서 현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한국청소년상담원 사이버상담실)

공자 (by. 경문도원)

공자는 35살의 나이로 제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공자선생, 정치란 무엇인가요?

정치는 백성들의 마음을 복심내지 않으면, 백성들은 상을 준다. 따위에도 도둑질할 만 할 것입니다.

공자는 30여 년 동안 72명의 군주를 만났지만, 누구도 공자의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완벽한 세상을 바로 만들기 위해선 사람들이 실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자선생의 말이 듣기는 쉽지만 그것은 이상향일 뿐이요.

'사형'이 없다.

공자는 시, 서, 역, 예, 악, 춘추를 재민하여 교과서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논어는 공자 자신이 지은 것은 아니고, 공자와 제자의 문답을 그 제자들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논어는 사람이 사형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의 중심 사상은 '인(仁)'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드신분은 꼭 다시 찾는 100% 토종 참옷!

옷 안오르는 100% 토종참옷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서울대학교 안전성 임상완료

Walking 히트상품 3억회

간편하게 팩으로 포장한 제품도 나와요

본 제품의 원료는

- 1 농림부 국책사업
- 2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3 서울대학교 임상완료

옷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옷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옷이 좋은줄은 알지만 옷값이 비싸서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한 번쯤은 입을 수 있는 신기술로써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옷 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 (정부 출연기관)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 한 신기술로써 서울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년여에 걸쳐 안전성 임상시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구입법 꼭 확인을...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농축 고형분이 매우 높아 그 유효성이 확실해 뛰어나다.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ml × 60팩) 2개월분 • 1병(1.5L)

언론보도자료 "인정 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옷 안오르는 참옷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옷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성고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옷값 걱정없는 참옷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옷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옷, 서울대 임상완료
- 2003.11 동아일보 - 옷 안오르는 참옷
- 2003. 10 스포츠투데이 - 참옷 부작용 걱정, 난 어때!
- 2006. 6 KBS 무엇보다 물어보세요 - 참옷의 이점은 무엇인가?
- 2006. 8. 20 KBS 상생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옷 참옷
- 2006. 10.31 KBS 무한재능 - 참옷

공급원 옷가네 참옷원 문의 080-838-3366